

보도시점 2026. 8. 31.(월) 11:00
< 9.1(화) 조간 >

배 포 2026. 8. 31.(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영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붙임】 1.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 경과
2. 한-영 FTA 개선 협정문 주요 내용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송영택 (044-203-5834)
		담당자	사무관	목연주 (044-203-5833)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한주실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곽소희 (044-203-5958)

- '21.1월 「한-영 FTA」 원협정 발효
- '22.2월 「한-영 FTA」 무역위원회 계기 개선협상 추진 합의
- '23.11월 협상 개시 선언 및 협상세척(ToR) 합의
- '24.1월 제1차 공식협상(서울)
- '24.3월 제2차 공식협상(런던) 이후 영국 조기 총선으로 협상 일시 중단
- '24.11월 제3차 공식협상(서울)
- '25.3월 제4차 공식협상(런던)
- '25.7월 제5차 공식협상(서울)
- '25.9월 한-영 통상장관회담(서울)
- '25.9월 회기간 협상(런던)
- '25.10월 한-영 통상장관회담(화상)
- '25.10월 회기간 협상(런던)
- '25.11월 한-영 통상장관회담(화상)
- '25.12.15일 「한-영 FTA」 개선협상 최종 타결 선언

- (개요) 기존 협정문 총 27개 장(章) 및 부속서 중 관세, 서비스 등 10개 장 개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 및 부속서 신설
- (상품) 수출입 허가 규범을 강화하고, 재제조품 교역과 수리·개조 원활화를 위한 규정 도입하여 교역 안정성 제고 및 순환경제 촉진
 - 對英 주요 수출입품목의 교역 안정성을 제고하고, 제품 순환관리 강화 등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
- (공급망) 원자재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첨단분야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과 공급망 협력 채널의 제도화
 - * 기존 협력채널 : 한-영 핵심 공급망 협력 MOU('22.2월) 및 한-영 공급망 대화
- (원산지) FTA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요건인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對英 시장접근 및 수출 여건 개선 기대
 - 신선 농수산물¹은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현행 기준 유지, 가공 농수산물 및 공산품²은 수출 잠재력을 고려하여 완화
 - * 자동차(관세 10%)는 역내부가가치 기준 완화(55%→25%),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 등(관세 최대 8%)은 부가가치기준 완화(50~75%→40%), 세번변경기준 완화, 배터리(관세 2%)는 역외산 부분품 사용시에도 무관세 혜택 적용 가능
- (서비스·투자·디지털) 포괄적 서비스 시장개방 및 투자 규범 현대화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및 국내 서비스 공급자·기업의 영국 진출 촉진
 - (서비스) 영측 양자 FTA 최초로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개방하여 우리 게임 기업 진출 기반 마련
 - (투자)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권 확보를 균형있게 반영한 투자 챕터 신설, ISDS 남용될 가능성이 큰 한-영 BIT('76년 체결) 종료에 잠정 합의
- (금융) 기존 협정 규범을 현대화하여 양국 금융회사의 시장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협력 촉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